



후대에 물려 주어야 할 도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대답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김기호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걷고 싶은 길이 있는 도시’, ‘만나고 함께 가꾸는 도시’, ‘이야기가 있는 도시’를 꼽았다. 그럼 당신이 꿈꾸는 도시는 어떤 곳인가?

‘행복해지려면 도시를 바꿔라-행복한 도시를 위한 46가지 제안’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고, 후대에 물려 주어야 할 도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탐구한 책이다.

책 제목으로 삼은 ‘행복해지려면 도시를 바꿔라’는 콜롬비아 보고타 시장을 지낸 엘니케 페날로사가 한 말이다. 취임 전 계획했던 광활한 고속도로망 건설을 취소하고 300km의 자전거도로를 만든 그는 ‘사람을 존중하는 도시만이 시민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다’고 역설했고, 사람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평등하다고 느끼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 ‘공공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책은 광주일보가 연중 시리즈로 진행한 ‘행복해지려면 건축과 도시를 바꿔라’를 묶어 펴냈다. 도시와 건축이 행복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행복한 삶을 위해 도시와 건축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탐색해 본 시리즈에는 도시와 건축 관련 교수, 연구원, 건축가, 언론인 등 광주·전남을 비롯한 국내외의 39명의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책에서 다루는 주제는 다채롭다. 보행도시, 스마트 도시, 공동체 삶, 교통문제, 공공 건축, 도시와 광장, 안전도시, 사회복지로의 건축 등 삶과 밀접한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책은 ‘도시의 비전, 도시의 미래’, ‘걷는 것이 즐거운 보행도시’, ‘다양한 이동 수단으로 접근이 편

광주일보 연중 시리즈 역은 ‘행복해지려면 도시를 바꿔라’ 출간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 39명 필진 보행도시·공동체 삶 등 주제

한 도시’, ‘주거 문화가 살아있는 정주도시’, ‘이야기가 있는 개성 넘치는 매력도시’, ‘지속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도시’ 등 8장으로 구성됐다. 각 장의 제목 하나 하나는 바로 우리 도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잘 보여준다.

책에서는 도시의 양적 확장을 재고할 시점이 왔음을 지적하며 21세기형 도시인 ‘콤팩트 시티’를 제안하고 자전거 친화도시와 탄소 저감 도시를 위한 건축과 도시 변화상을 살펴본다. 또 도시를 풍요롭게 하는 건축의 공공성을 모색하고, 공공공간의 매력을 높이는 민간주도 타운메니지먼트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SF영화나 등장할 법한, 공간의 영역을 허문 ‘입체도시’ 등 미래를 탐색하고 철도역과 오래된 하천 등 기존에 존재했던 것들에 새로운 발상을 더해 도시의 주요 발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실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거 공간’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눈길을 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주택 환경, 대세가 되어 버린 아파트 문화의 대안 모색, 사라져 가는 공동체 복원, 소수 중심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거문화 제안 등이다.



다양한 색상과 형태로 디자인된 경전철은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살아 움직이는 도시예술품이다. 프랑스 몽펠리에. <사진출처 : http://transporturbain.canalblog.com>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든 싱가포르, 도시 브랜드이자 관광상품이 된 경전철을 통한 교통망을 만들기 도시 변화를 일으킨 스트라스부르 등 프랑스의 중소도시, 공공공간을 통한 매력 도시 만들기엔 적극 나서고 있는 일본 등의 사례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편집 책임을 맡은 조용준 조선대 명예교수는 프롤로그 ‘도시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에서 “이제 확

산과 자동차, 분리와 개별성을 강조한 근대도시 정책에서 벗어나야만 도시가 다양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집단과 계층, 특히 경제적·도시적 약자들까지 모두 섞여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장이 될 수 있다”며 “이 책이 건축이나 도시 만들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더불어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바꾸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세움·2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거주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싱가포르 마리나 원 주상복합아파트. <출처:안길진>

해설이 있는 ‘발레 살롱콘서트’

광주시립발레단, 3월 8~9일 광주예술의전당

지나해 선보인 기획공연 ‘Voice of spring’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주요 장면을 부분적으로 선보이는 갈라 쇼, 해설을 곁들인 레퍼 콘서트 등 클래식 예술의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시도들이 공연가에서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다.

광주에서도 난방부터 컨템포러리 등 발레의 시대사를 통시적으로 다루고, 해설까지 접목해 쉽게 즐길 수 있는 발레 콘서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화제다.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박경숙·발레단)은 해설이 있는 발레 ‘발레 살롱콘서트 I-Voice of Spring’을 3월 8일(오후 7시 30분), 9일(오후 3시, 7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선보인다.

공연은 18세기 유럽에서 지성의 산실이자 토론의 장이었던 ‘살롱’을 컨셉으로 관객들에게 ‘타이스의 명상곡’, ‘탈리스만’ 등 총 일곱 개 작품을 갈라 공연으로 보여준다. 한 자리에서 여러 작품의 주요 대목을 접할 수 있어 발레 입문자라도 가볍게 즐길 수 있다.

러시아 민간문학에 바탕을 둔 최초의 발레작품 ‘프레스코’는 망아지가 지닌 마술 채찍으로 주인공 이반이 벽화 속 여인들을 현실로 불러내며 시작된다. 여인들은 각기 독특한 춤을 추며 자신의 개성을 드러낸다.

우아하고 따스한 사랑의 감정을 미려하게 표현하는 컨템포러리 발레 ‘타이스의 명상곡’도 관객들을 만난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승원과 피아니스트 이윤희의 선율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발레단이 20여 년 만에 오는 10월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전막 공연으로 선보일 예정인 낭만발레의 수작 ‘코렐리아’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작중 ‘시간의 춤’과 3막 ‘그랑 파 드 뒤’ 등 클라이막스를 보여줘 연발 정기공연을 예고한다.

이 밖에도 ‘로미오와 줄리엣’ 중 ‘발코니 파 드 뒤’, 인도를 배경으로 한 이극적 작품 ‘라 바야데르’ 중 ‘인디안 댄스’ 등을 안무한다.

총연출을 맡은 박경숙 감독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에너지 넘치는 춤과 싱그러움 음악으로 봄을 여는 2024년 광주시립발레단의 첫 공연을 선보이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험란한 기교와 청량감 넘치는 작품들로 화려한 앙상블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석 2만 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디자인진흥원, 공예문화 육성 사업 추진

빛고을 핸드메이드페어·매종&오브제2024 등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올해 ‘빛고을 핸드메이드페어’ 개최 등 공예문화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빛고을 핸드메이드페어 개최, ‘매종&오브제 2024’ 공예홍보관 마련, 공예·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올해 광주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14일 진흥원에 따르면, 공예문화산업 육성은 공예·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공방 육성을 위한 오핸즈 브랜드 인증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또한 스타 공예상품 개발 지원을 비롯해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광주시 예선대회 등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수공예 공방을 위한 판로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우수 공예품 팝업 스토어 운영, 우수 공예품 상설 전시판매장 운영, 국내 산업전시회 개발 참가 지원 및 공동관 운영 등도 추진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7월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빛고을 핸드메이드페어를 개최해 지역 200여 공방의 우수 공예품 전시판매를 돕는다. 아울러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생활제품 전시회 ‘매종&오브제2024’에 공예홍보관을 마련, 광주 공예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지원 프로그램 소개, 공예 공방과 디자인기업이 교류하는 ‘미팅데이’를 마련할 예정이다.

송진희 원장은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공예문화산업 육성은 공예문화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유망 공방 육성, 우수상품의 국내외 판로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연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돼 있다

연못에 드리워진 연(蓮)은 한때의 정열을 소진해버린 허무함 같은 게 느껴진다. 그러나 물 위에 동동 떠있는 모습은 여전히 생에 대한 열망이 임혀진다. 수련과에 속한 물풀인 연은 가로로 뻗는데, 여름에는 붉은색 또는 흰색의 꽃이 핀다. 진흙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은 군자에 칭할 만큼 찬사를 받는다.

최미영 작가가 연(蓮)을 소재로 하는 전시를 연다. 전시 주제는 ‘蓮緣연연’이며 오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광주 양림미술관.

작품은 연(蓮)이라는 특정 소재가 발하는 인연을 떠올리게 한다. 물 속 뿌리와 마디로 연결된 연이 그윽한 향기를 발하는 꽃을 피우듯 우리의 삶도 크고 작은 인연이 만나 저마다의 인생을 이룬다.

사실 삶은 수많은 인연들에 둘러싸여 있다.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그 인연들은 씨줄과 날줄로 엮여져 있다. 비단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자연, 사회제도, 세상의 다양



‘蓮緣’
는 서로 연결돼 있으며 그것이 또한 우주의 조화를 이루는 본질”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최미영 ‘蓮緣연연’ 전
21일~3월 3일 양림미술관

알뜰 기차여행으로 떠나는 3월 남도 투어

로컬 명소 23개 코스 3만원에 체험

‘여행가는 달’ 3월을 맞아 지역으로 떠나는 관광객들에게 교통·숙박 등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오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 특히 비수도권 21개 인구감소지역 여행객에 할인을 제공, 로컬의 매력을 재발견하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3월엔 여기로’는 로컬 명소, 전통문화 및 지역 특산물, 전통시장 등 23개 코스를 경비 3만원(숙박, 식사 등 포함)으로 체험하는 당일 기차 여행 프로그램이다. 3월 8일부터 말까지 매주 금, 토요일에 총 7회 진행하며 구급 품으로 신청.

8일에는 ‘전남 로컬여행’이라는 테마로 임실, 남원, 곡성 등 전라선으로 떠난다. 이어 23일 ‘남도 로컬여행’으로 부안, 고창, 담양, 29일 ‘남도 봄의 향기’로 보성, 하동, 구례 등을 여행할 수 있다. 지역 숙박·관광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전남 강

진군문화관광재단에서는 강진 오소스테이 숙박 할인혜택(전 객실 20%)을 제공하며 내부 출입을 제한하던 남원 광한루원 광한루 누각은 3월 29-31일 한시 개방할 예정이다.

비용과 시간을 함께 절약할 수 있는 ‘알뜰 국내 여행’ 상품도 주목할 만하다. ‘여행상품 특별기획’을 통해 ‘동해안 7만 국도 따라 1박 2일 여행’, ‘제천 힐링 기차여행’, ‘명사초정 안동 1박 2일 인문학 여행’, ‘남도 미식여행’, ‘봄의 전원 광양 대하, 구례 산수유 여행’ 등 50여 개 국내 여행사 90여 개 여행상품을 4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4월 14일까지 지역관광 결합 기차여행으로 숙박·관광지 입장권을 함께 구매 시 KTX 주중 최대 50% 등 할인을 제공한다. 지방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은 1만5000원 할인, 렌터카 여행 시 비수도권 20%, 인구감소지역 50% 할인 혜택도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